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된 모든 이를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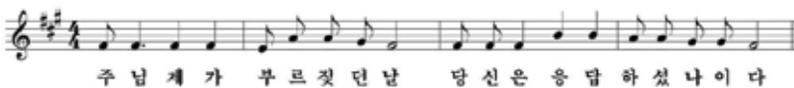
(루카 11,2-4)

〈The Lord's Prayer〉, James Tissot(1836-1902)

[제1독서] ..... 창세기 18,20-32

[화답송] ..... 시편 138(137),1과 2나.2ㄱㄷ과 3.6-7ㄱㄷ.7ㄹ-8  
(◎ 3ㄱ 참조)

◎ 주님,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은 응답하셨나이다.



- 주님,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제 입의 말씀을 들어 주시기에,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거룩한 성전 앞에 엎드려나이다. ◎
- 당신은 자애롭고 진실하시니,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이 응답하시고, 저를 당당하게 세우시니, 제 영혼에 힘이 솟았나이다. ◎
- 주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이를 굽어보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알아보시나이다. 제가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원수들의 분노 막아 저를 살리시나이다. 당신은 손을 뻗치시나이다. ◎

- 주님은 오른손으로 저를 구하시나이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주님, 당신 자애는 영원하시옵니다.  
당신 손수 빛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

[제2독서] ..... 콜로새서 2,12-14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우리는 성령을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하느님께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네. ◎

[복음] ..... 루카 11,1-13

[성가 안내]

- 입당성가: [337] 미사 시작
- 봉헌성가: [512] 주여 우리는 지금      [217] 정성어린 우리 제물
- 성체성가: [170] 자애로운 예수      [182] 신묘하온 이 영적
- 파견성가: [32] 언제나 주님과 함께



### “청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 “Ask, seek, and knock.”

하느님께서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커서 그 도시들을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에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다가가 당신의 심판계획을 알려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도시에 의인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인 십 명만 있어도 심판을 물리시겠느냐고 반문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의인 오십 명을 보아서라도 그 도시를 멸망하지 않으시겠다고 대답하시지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느님께 청하고 끝내는 열 명에 이릅니다. 아브라함은 용기를 내어 하느님께 청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아뢴다고 주님께서서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곳에서 열 명을 찾을 수 있다면 …… ?” (창세 18,32)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십니다. “그 열 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33절) 아브라함은 그 큰 도시에 의인이 열 명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더 이상 하느님께 청하지를 못합니다. 그 큰 도시는 의인은 거의 없고 악의 세력에 기울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 중에 하나가 청합니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루카 11,1) 주님께서서는 주의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루카 복음의 주의 기도는 마태오 복음과는 기도의 길이가 다르지만 하느님에 관한 부분과 인간의 일상생활에 관한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동일합니다. 마태오와 마찬가지로 하느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용서에 관한 것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청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서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끊임없이 하느님께 청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용기를 갖고 청하라는 의미로 다음과 같이 일상생활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한 친구를 찾아가서 빵을 좀 달라고 청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친구에게 사정을 합니다. ‘여보게, 빵 세 개만 꾸어 주게. 내 벼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루카 11,6) 그렇지만 그 친구는 이미 잠자리에 들었고 빵을 줄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서는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벼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졸곤 졸라 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8절) 하느님께 끊임없이 청하면 들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9-10절)

우리는 하느님께 청할 때, 실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 하느님께서 못 들으신 체하거나 아니면 그 청을 들어 주지 않으시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아버지께서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청하는 것을 다 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들어 하느님께 끈기와 함께 쉽 없는 청원을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서 하느님께 계속 청하는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께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The Lord has decided to destroy Sodom and Gomorrah because their sins were so grave. The Lord, in the appearance of the three men, told Abraham about his plan to destroy them. Thinking that there were many righteous people in the cities, Abraham asked God, “Will you really sweep away the righteous with the wicked? Suppose there were fifty righteous people in the city; would you really sweep away and not spare the place for the sake of the fifty righteous people within it?” God answered that he would not destroy if there were fifty righteous people.

Abraham continuously asked God and the number got down to ten. Abraham persisted, “Please, do not let my Lord be angry if I speak up this last time. What if ten are found there?” “For the sake of the ten”, he replied, “I will not destroy it.” Knowing that there were not even ten righteous people in the city, Abraham could not ask more.

Jesus was praying in a certain place, and when he had finished, one of his disciples said to him, “Lord, teach us to pray just as John taught his disciples.” Jesus taught them ‘The Lord’s Prayer’. Luke’s version of the Lord’s Prayer is a little shorter than Matthew’s version, but the messages are the same. In the first part, we pray for God’s Kingdom to come. And in the second part, we ask for our daily bread. Finally, we ask for forgiveness of the sins and leading from the temptations.

The Lord says we must pray persistently. He tells us the following parable: “Suppose one of you has a friend to whom he goes at midnight and says, ‘Friend, lend me three loaves of bread for a friend of mine has arrived at my house from a journey and I have nothing to offer him,’ and he says in reply from within, ‘I cannot get up to give you anything.’” The Lord continued, “I tell you, if he does not get up to give him the loaves because of their friendship, he will get up to give him whatever he needs because of his persistence.”

The Lord says, “And I tell you, ask and you will receive;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the door will be opened to you. For everyone who asks, receives; and the one who seeks, finds; and to the one who knocks, the door will be opened.”

We sometimes get disappointed when we ask God for something. God often pretends not to hear us or appears not to allow us to get something. However, the Lord gives us everything we ask for because he loves us so much. Abraham persistently asked for the mercy of God in front of Sodom and Gomorrah’s destruction. We must pray persistently in any circumstances.

##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 하는 성체조배 5

### 예수님과 함께 머물기

기도하려고 감실 앞에 앉아있어도 마음이 무겁고 복잡할 때가 있다. 그럴 때면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심을 느끼며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쉰다.

####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1 시작 기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말씀과 성체로 저와 함께 계시는 당신께  
찬미와 흠숭을 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저를 보고 계시고  
제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당신께 바치고, 당신에게서만 기대하오니  
예수님, 제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제게 유익한 모든 은총을 주시기를 청합니다.  
아멘.

#### 2 기도 지향

(내가 바라는 기도의 지향을 말씀드립니다.)

#### 3 성령께 드리는 기도

성령님, 세상 걱정으로 힘들어하는 저를 치유해 주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선과 악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 4 말씀 (반복해서 읽고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구절에 머문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 들였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와라고 동생에게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루카 10,38-42)

#### 5 묵상

주님의 현존 앞에 머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갈 때, 감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요? 아무런 말 없이 침묵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저는 말하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묵상하고 느끼면서 머물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맡기나요? 어떤 방식으로 주님의 현존 앞에 머무르나요? 감실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그렇게 있다 보면,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고 졸리기도 합니다. 졸리면 그냥 졸면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니 아무 상관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 6 새김 (5-10 분 정도 침묵 중에 기도하며 내게 주시는 주님 말씀을 되새긴다.)

지금 내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있는 걱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 걱정을 예수님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다.

#### 7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 (이어서 묵주기도를 바칠 수 있다.)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그분 사랑의 눈길 아래 머무신 성모님, 저도 항상 저를 바라보고 제게 귀기울이고 계신 주님께 마음을 열어 그 사랑 안에 머물도록 전구해 주소서.

#### 8 마침기도

사랑 때문에 거룩한 감실 안에 머무시며  
제 영혼의 양식이 되어주신 예수님,  
당신 말씀에서 길어 올린 풍요로운 은총과 참된 위로는  
제 삶의 희망이 됩니다.  
바라는 모든 이의 구원이신 주님,  
오늘 제가 드린 기도를 너그럽이 받아주시고  
제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저의 선을 위하여 마련하신  
주님의 뜻을 믿고 온전히 따르게 해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 하는 성체조배** (성바오로딸 수도회 역음)를  
하상주보에 실었습니다. “순서에 따라 성체조배를 하다보면 우리 안에  
현존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성삼위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함으로써 말씀이 우리 삶을 비추고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기도 안내 중)



2014년 8월 14일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4박 5일간의 시간 동안 우리 국민들은 많은 위로와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왜 전 세계의 많은 사람이,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그분께 열광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 새터민, 장애인, 이주 노동자...’ 교황님께서 한국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입니다. 교황님께서서는 우리 사회의 약자들과 만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도 길을 가다가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거나 아이들이 있을 때에는 차를 멈추고 얼굴을 쓰다듬어 주거나 이마나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인상을 준 것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모습이었습니다. 교황님께서서는 세월호 추모 노란 리본을 유족들에게 받아 다시고는 우리나라를 떠나는 기자회견 시간까지

달고 계셨는데, 몇몇 사람들이 ‘중립을 지켜야 하니 그것을 때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세월호 추모 행동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교황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는 없다.’**

‘인간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 없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사제직을 선택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나는 정말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나는 정말 나에게 맡겨주신 예언자적 소명을 충분히 발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월호 관련 이야기나 다른 사회적 문제에 대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교회가 사회 문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나?’, ‘신부가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사목자로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만한 것인지 고민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신학교에서 배울 때에는 **예언자적 소명**을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많이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뿐 아니라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신자들은 예언직을 수행할 의무가 있는데 여러분은 그 예언직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고민에 빠졌을 때 교회가 제시해 주는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회교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회교리를 들여다봐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 교리는 너무 이론적이다. 사회 교리는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사회 교리는 너무 추상적이다.”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한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황창희 신부님의 **“살며 배우는 사회교리”**입니다. 이

책은 사회교리가 우리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과 우리가 삶 안에서 어떻게 사회교리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 지 말해 줍니다.

신부님은 책의 앞머리에서 말합니다. “세상의 불의와 부정에 항거하던 7~80년대 한국 사회 안에서 가톨릭교회는 자신의 예언자적인 소명을 충분히 발휘하였다. 침묵이 강요되고 희생이 강요되던 사회 안에서 사람들을 위해 정의와 진실을 요구하던 가톨릭교회의 모습은 그야말로 선각자와 같은 모습이였다.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교회 안에서 도덕성을 발견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를 찾아왔다.”

사실 이 때만 하더라도 지학순 주교님의 양심선언, 안동교구 가톨릭농민회 사건 등 가톨릭 안에서 사회정의를 부르짖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교회가 왜 정치에 참여하느냐는 비판은 제기되지 않았습니니다. 오히려 교회의 행동을 보며 겉으로는 잘 표현하지 못해도 속으로 박수를 보내며 많은 이들이 지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상황은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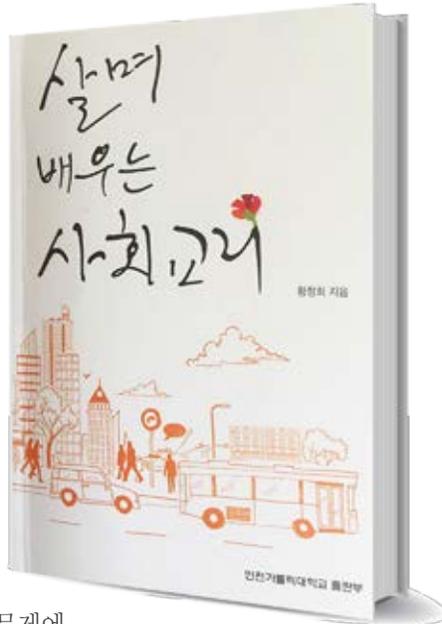
신부님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나 민주화가 실현되고 한국 사회가 정치, 경제, 문화적인 모든 부분들에서 발전하게 되자 사람들은 혼돈의 시대를 살게 되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판단인지 더 이상 판단할 수 없는 세상에 살게 된 것이다.”

이렇듯 세상은 많이 변화되었고 제도권 교육 안에서는 정교분리 원칙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회 분위기에 휘말려 예언자적 소명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이 말이 사회를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반사회적인 성향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이 더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라는

말입니다.

신부님은 **‘노동자, 외국인, 장애인, 어린이’와 같은 힘없는 이들이 늘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늘 생각하며 돌보아야 하고, 환경을 보존하고, 이 사회를 이끌고 나가는 리더들이 권력자가 아닌 봉사자로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느님의 가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사회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서서는 온 생을 통해 병자들과 함께하고 죄인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홀로 지신 십자가의 무게를 가볍게 해드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 40)”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교회가 제시해 주는 ‘사회교리’를 늘 생각하며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Saint Story

# Saint James the Greater *Feast day: July 25*



\* Guido Reni, <Saint James>

Nothing is known of St. James the Greater's early life, though it has been established that he is the son of Zebedee and Salome and brother of John the disciple. The title "the Greater" was added to St. James' name to help distinguish him from the Apostle James "the Less," who is believed to have been shorter than James "the Greater."

Saint James the Greater was one of Jesus' first disciples. James was fishing with his father and John the Apostle when Jesus came to the shores of the Sea of Galilee and called for the fisherman, who were unable to catch any fish that day, to dip their nets in the water once again. When the fishermen followed Jesus' instructions, they found their nets full, and after emptying the fish

on board, the boats nearly sank from their weight.

Later, James was one of only three called by Jesus to witness his Transfiguration, and when he and his brother wanted to call fire upon a Samaritan town, both were rebuked by Jesus. Following Christ's Ascension, James spread the Gospel across Israel and the Roman Kingdom as well. He traveled and spread the Word for nearly forty years in Spain. It is said that one day, as he prayed, The Blessed Virgin Mary appeared to him and asked him to build her a church, which he did.

Later, James returned to Jerusalem but was martyred for his faith by King Herod, who decapitated him. Saint James the Greater is known as the first apostle to die.

As he was not allowed to be buried following his martyrdom, his remains were taken to Compostela, Spain, by some of his followers, who buried him. In the ninth century his remains were discovered and moved to a tomb in Santiago de Compostela. Today, his remains can still be found in the Cathedral of Santiago. Because Santiago de Compostela is the most frequently visited place pilgrims migrate to following Rome and Jerusalem, Pope Leo declared it a shrine.

## St. Christop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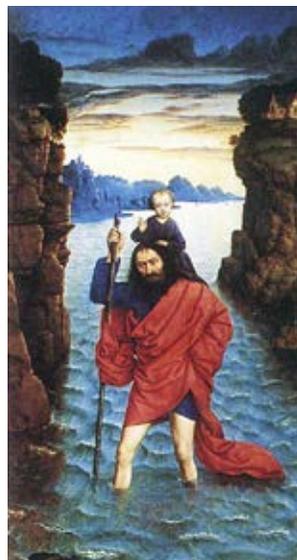
**the patron Saint of travelers** *Feast day: July 25*

Saint Christopher is one of the most popular, yet most enigmatic Catholic figures. He is considered a saint, although he is not in the official canon of the saints. He is listed as a martyr, possibly named Reprobos, who died under the Roman Emperor Decius, in 251 AD. Most Catholics refer to him as Saint Christopher anyway, and his medals and devotions are among the most common in Catholicism. Other than his listing as a martyr, there are no primary sources referring to St. Christopher, only legends.

One day, a child approached St. Christopher by the river and asked to be helped across. St. Christopher obliged. However, as he entered midstream, the river rose and the child's weight grew and became extremely heavy. It was only by great exertion that St. Christopher safely delivered the child to the other side.

When St. Christopher asked the child why he was so heavy, the child explained that He was the Christ and when St. Christopher carried Him, he also carried the weight of the whole world on his shoulders. The child then vanished.

Because he is not officially recognized by the Church, he has no date of beatification or canonization. Despite these technicalities, it is widely thought that he was real and that he continues to intercede on behalf of Christians, especially children, today.



\* Dieric Bouts, <Saint Christopher>

### ANNOUNCEMENTS

- 1 Sunday School seek catechists & assistants for the 2016-2017 school year. Please contact Yunchong Boyle at (703) 371-3589 or email at spc15.re.admyc@gmail.com for more information.
- 2 **CCD & CYO Summer camp registration**
  - When : July 24 • Where : Cafeteria

CCD

## Summer CAMP



- **WHEN** : August 12 (Fri) - August 14(Sun)
- **WHO** : Rising 4<sup>th</sup> – Rising 8<sup>th</sup> grade students
- **WHERE** : Pine Creek Retreat Center  
1794 Back Creek Road, Gore, VA 22637
- **Registration Fee**: \$100/per participant



CYO

## SUMMER CAMP

- **WHEN** : August 4 (Thur) at 1PM ~ August 7 (Sun) at 3PM
- **WHO** : Rising 9<sup>th</sup> – Graduated 12<sup>th</sup> grade students
- **WHERE** : Makemie Woods Campsite (Richmond, VA)
- **Regular Registration** : July 17, 2016
- **Registration Fee**:
  - Regular Registration: \$110
  - 2 or more children per family: \$80 per student
  - Late Registration: July 24, 2016 (\$125)





### 하상회 모임

70세 이상 형제들의 모임인 하상회가 지난 17일(일) 친교실에서 7월 정기 모임을 가졌다. 4월부터 시작한 ‘삶의 지혜 나누기’에서 김순길 바오로 형제는 ‘인사’라는 주제로 “서로 공손하게 먼저 예의를 지키며 인사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 사회가 밝아지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백성광 안드레아 형제는 ‘효도 한마당’ 행사에 하상회원들도 더욱 능동적으로 함께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회원 65명 중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들은 병중에 있는 회원을 위해 치유의 은총을 간구하며 기도하고, 빙고 게임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 안나회 모임

65세 이상의 자매들로 구성된 안나회는 지난 17일(일) 친교실에서 회원 85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 정기 모임을 가졌다. 정인준 (파트리치오) 주임 신부는 “배우자, 자녀, 손자들에게 언제나 칭찬을 하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자”고 당부했다. 회원들은 7월에 생일을 맞이한 회원을 축하하고 점심을 나누며 즐거운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 성소자 모임 (QUO VADIS)

지난 17일(일) 오후 친교실에서 성소자 모임이 있었다. 지도 교사 죠(Joe)는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1주일에만 30분이라도 주님과 함께 하는 성체조배를 하자”고 강조하며, 묵주기도를 할 때에도 각 신비를 잘 묵상하며 정성껏 바치길 당부했다.



## 2016 세계청년대회(WYD) 7월 26-31일, 폴란드 크라쿠프

### 자비의 희년에 ‘자비’ 주제로 열려

가톨릭 청년들의 신앙 축제인 세계청년대회(WYD-World Youth Day)가 프란치스코 교황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7월 26일부터 31일까지 폴란드 크라쿠프(Kraków)에서 열린다. 크라쿠프 대교구는 세계청년대회를 만든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1964년부터 교황으로 선출된 1978년까지 교구장 주교로 활동했던 곳이다. 하느님의 자비(Divine Mercy) 신심을 전파한 성녀 마리아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수녀의 무덤도 이곳에 있다. 특별히 폴란드는 2016년이 가톨릭 전래 1050년을 기념하는 해이다.

제31차 WYD는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마태 5,7)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180여 개국에서 200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브라질에 이어 이번에도 WYD 현장을 찾는다. 교황은 대회 기간인 30일에 청년들에게 고해성사를 주고, 31일 대회 폐막미사를 집전한다.

지난 2015년 7월 26일, 교황은 바티칸의 주일 삼종기도 연설 중에 아이패드를 통해 WYD 첫 번째 참가자로 등록하며 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했었다.

교황은 28일 야스나 고라(Jasna Gora)의 성모 성지에서 폴란드의 가톨릭 전래 1050주년 기념 미사를 봉헌한다. 29일 오전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방문하여 생존자 15명을 만나고, 성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St. Maximilian Mary Kolbe) 신부가 순교한 방에서 기도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에는 크라쿠프의 어린이 병원을 찾아 어린이 환자와 부모들을 만난다. 30일 오전에는 마리아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성녀의 무덤이 있는 ‘하느님의 자비 성지’ (Divine Mercy Sanctuary)를 방문한 뒤 청년들에게 고해성사를 줄 예정이다. 31일 오전 10시 폐막미사에서 교황은 세계 청년들을 향한 메시지와 2019년 차기 대회 개최지를 발표한다.

**1 2016-2017년도 사목보고회**

- 일시 : 7월 31일(일) 오후 1시 (점심 식사 12:00)
- 참석 대상 : 사도임원, 재정위원, 사도회 임원, 구역 소공동체 봉사자, 단체장(신심 및 활동 단체), 청소년 사도회, 주일학교(CCD, CYO), 교감, 하상문화원 원장, 하상방송 코디네이터, 하상성인학교 교장/교감, 하상한국학교 교감
- 문의 : 최재필 총무 (703)589-6580

**2 K of C 정기 모임**

- 일시 : 7월 24일(일) 오전 11:30 (B-1,2)
- 문의 : 김 버나드 (703) 342-2194

**3 요한회(50대 신자) 정기 모임**

- 일시 : 7월 24일(일) 오전 11:30(B-3)
- 문의 : 윤봉근 도미니교 (703)307-7939

**4 NJ 파티마 본부 일일 성지순례**

- 일정 : 8월 13일(토)
- 등록 : 미사 후 친교실 17일(일), 24일(일)
- 문의 : 김만식(재권요셉) (703) 403-1185

**5 CCD 여름 캠프 신청**

- CCD 여름 캠프신청 : 미사(8시,10시,11:40) 후 친교실
- 캠프 일정 : 8월 12일(금)- 8월 14일(일)
- 장소 : Pine Creek Retreat Center
- 문의 : 서동민 (571) 435-6476

**6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 주일학교에서는 교리교사 및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경험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교우분들은 성당 사무실이나 주일학교 교무실로 연락주십시오.
- 문의 : 윤정 보일 교감 (703) 371-3589/ 성당 사무실(703)968-3010

**7 P.R.H Summer Retreat 2016(Peace Retreat House)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

- ▶ Pentecost Festival 2016
- 대상 : 청소년부(18세 이상)
- 일시 : 8월 12일(금) 오후 5시 - 8월 14일(일) 오후 3시
- 비용 : \$70 (Checks Payable to: Peace Retreat House)
- 등록 및 문의 : Peace Retreat House (484 Pump House Rd, Weatherly, PA 18255) (570)427-2467/ sisters@peaceretreat.us

**8 셔틀버스 추가 운행 안내**

- 셔틀버스를 주일 아침 7시 20분부터 7시 50분까지 추가로 운행합니다.

**셔틀버스 스케줄**

- ▶ NGIS (Northrop Grumann Info) 주차장에서 성당으로
  - 오전 7:20 에서 10분 간격으로 7:50 까지
  - 오전 9:20 에서 10분 간격으로 9:50 까지
- ▶ 성당에서 NGIS 주차장으로
  - 오전 11:15 에서 10분 간격으로 11:45 까지
- ▶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단체 모임과 10시 미사에 참여하는 교우들은 아침 셔틀버스를 이용하시어 10시 미사에 참여하는 신자들을 위해 주차 공간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페루 선교단 (Peru Pucallpa Outreach Mission) 귀국**

- 본당의 페루 선교단이 지난 7월 8일부터 15일까지 페루 부팔파를 방문하여 선교 활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 선교단의 여정에 함께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돌아온 선교단에게 감사드립니다.

**10 CYO 여름 캠프**

- 일정 : 8월 4일(목) - 8월 7일(일)
- 대상 : 9학년-12학년
- 장소 : Makemie Wood Campsite(Richmond, VA)
- 추가등록(7월 24일) : \$125

**하상 TV 하이라이트**

Cox Ch.30, 830  
Fios Ch. 30

**7월 28일 (목) 오후 9시~11시**

- **오늘의 양식** : 성 정 바오로 성당 주일 강론
- **가톨릭 소식** : 교황청, 세계, 한국의 주요 가톨릭 소식 종합
- **글로벌 나눔** : 아시아에 희망을 심다4. 참된 나눔이 무엇인지 일깨우는 캄보디아 한국 외방선교회의 나눔 프로젝트
- **생명 그리고 사랑** : 한국 가톨릭 의료원의 첨단 의술 탐방 시리즈(8)

**7월 29일 (금) 오후 10시~11시**

- **특집 다큐** : 아빠 우리가 있어요



MASS TIMES FOR TRAVEL

**여름 휴가 중 가까운 성당 및 미사 시간 찾기**

\* \*  
인터넷에서 아래 주소를 입력하면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과 미사시간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www.masstimes.org](http://www.masstimes.org)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6년 2016년 7월 17일 (연중 제16주일)

주일헌금	\$ 7,416.50
교무금	\$ 9,120.00
교무금(신용카드)	\$ 3,780.00
특별헌금	\$ 401.01
2차 헌금	\$ 0.00
<b>합계</b>	<b>\$ 20,717.51</b>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전례 및 청소 담당**

7월 24일	.....	웨이팩스 2-1
7월 31일	.....	웨이팩스 2-2

**기도해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온규희(발바라), Thomas Byrne, 홍종범(시몬), 한중분(루시아), 정명금(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Dan Cho, 전원후(마리아), 이강영(테오도로), 김태명(시몬), 신순영, 박재중(요셉), 김용구(베네딕토), 송영하(요한), 김영자(세레나)

**♥ 군복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테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노), 윤복참(프란치스코), 임현석(아비포), 손범기(펠릭스), 이재운(안토니오 파도버), 장동건(스테파노), 장동호(다니엘), 주기환(필립), 최홍성(안토니), 심용천(요한), 전성호(세례자 요한), 장동길(피터), 최용성(프란치스코), 고미헬(미카엘라), 이솔(루시아), 에스더 정(세레나), 정수지(요안나), 권범수(요한), 임철민(요셉)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교황님 7월 기도지향**

**일반지향:**  
토착 민족들

정체성과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토착 민족들이 정당한 존중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선교지향:**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의 교회가 대륙의 선교를 위하여 새로운 힘과 열정으로 복음을 선포하도록 기도합니다.

**금주의 행사**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7월 24일(일)	연중 제17주일	KofC(11:30, B-1,2), 요한회(11:30, B-3,4), CLC 피정(18:00, 친교실)
25일(월)	성 야고보 사도 축일	아침 미사(6:00, 성당), 하상한국학교 여름학기(9:30-15:30, 하상관, 친교실)
26일(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부모 성 요아킴과 성녀 안나 기념일	레지오 마리아(20:00, 친교실), 성경기도회(20:00, 친교실), 예비자 교리(20:00), 하상한국학교 여름학기(9:30-15:30, 하상관, 친교실)
27일(수)	연중 제17주간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9:30, 친교실), 성경학교(20:00), 하상한국학교 여름학기(9:30-15:30, 하상관, 친교실)
28일(목)	연중 제17주간 목요일	아침 미사(6:00, 성당), 하상한국학교 여름학기(9:30-15:30, 하상관, 친교실)
29일(금)	성녀 마르타 기념일	하상한국학교 여름학기(9:30-15:30, 하상관, 친교실)
30일(토)	연중 제17주간 토요일	아침 미사(7:00, 성당), 레지오 마리아(9:30, 친교실)
31일(일)	연중 제18주일	사목보고회(12:00-15:00, 친교실, 성당)

<b>RE/MAX Gateway 부동산</b>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b>정재민 치과</b>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b>Pohanka Acura</b> New / Used Cars Yong Kim (미카엘) 847-867-1730 Cell. 571-445-0788	<b>허진 변호사</b> Law Office Jason Huh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18-5404	<b>엘리사벳 백화점</b> 화장품, 건강식품, 이불, 옷,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 엘리사벳 703-508-7743
<b>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b>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b>영스 헬스케어</b> Youngs Health Care Inc.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b>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b>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b>주택용자, 채용자</b> EverBank 안윤민 (바실리오) 571-275-0691	<b>문스 자동차 정비</b>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b>안아픈 세상(양방/한방)</b>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병나라 이혁찬 한의원 703-658-5100	<b>시티 종합 보험</b>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연 (엘리사벳) 703-352-1073	<b>Lee's Heating &amp; Air</b>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b>소아전문치과</b>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b>보험/은퇴연금</b> 이경태 요셉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 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b>시원 냉난방</b> 에어컨, 히팅, 플러밍 703-362-7770	<b>민기호 내과</b> John Min M.D. 703-462-8711	<b>Euromotor Cars</b>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b>스카이 학원</b> 전 학년 전문 SAT, 영어, 수학 썸머 등록 중, 조기등록 혜택 김영란 (아네스) 703-867-1144	<b>재노 오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b>Susan Interior</b> 커튼, 블라인드 김수산나 703-981-4296	<b>한미 소독</b> 가정집, 상점 (STORE) 하용업 (요한) 703-451-3322	<b>케어피플 &amp; 호스피스</b> 간병사, 방문간호, 물리치료 이선애 (엘리사벳) (O) 571-297-4747 (C) 240-413-0365	<b>척추사랑</b>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 (마르코) 센터빌, 찰탈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b>McLean Psychiatric Services</b> 정신과 치료와 상담 Richard Kim, M.D. 703-336-2406
<b>하얀나무치과</b> www.whitreedental.com 박경욱 (크리스) D.D.S. 703-726-8804	<b>F teck connection, LLC</b> POS(cash register), CCTV, Network, Bank Card Services 마르티노 손 540-429-1399	<b>와니 건축</b> In & Out 핸드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b>마태오 흥 종합보험</b> 자동차, 집, 사업체, 은퇴연금 장기간호 / 생명 / 건강보험 703-969-8956 703-969-8954	<b>신디 리 부동산</b> 텔리 전문 사업체 이 루시아 703-338-0008
<b>정수정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b>그레이스 홈 케어</b>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식, 박사 운영중 대표 김아네스, RN 703-865-7370	<b>Springfield TOYOTA</b> New / Used Cars 조상준(유스티노) 703-269-1400 Cell. 703-909-0688	<b>영스 히팅</b> 에어컨, 히팅 703-728-3160	<b>찬탈리 HYUNDAI</b> 김경태(바오로) 571-314-3467
<b>Penta Olympic Fencing Club</b> 펜싱 클럽 이영찬(베드로) 703-207-1059 Cell.703-801-3924	<b>ASSA 종합보험</b> 최 클라라 생명, 건강, 비즈니스 자동차, 주택 703-649-2110	<b>5분 도정</b> 즉석 도정미 판매(당일 도정) 현미, 5분도미, 백미 www.JCProvision2016.com 703-366-3286	<b>임경옥 부동산</b> Gangnam Realty & Management Group, LLC 703-944-1337	<b>Kitchen, Deck Sunroom</b> 혜성건축 김영수 (요셉) 571-477-5996
<b>윤 조셉 변호사</b>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b>에스터'S 키친</b> 케이터링 전문 www.estherkitchen.com 최은숙 (에스터) 571-215-3232	<b>영스 노인 복지센터</b>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b>Landscape</b> 정원 관리, 나무 자르기 하상욱(요한) 703-609-1011	<b>Golf Lesson</b> 성인레슨 및 윌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퍼 환영 레지나 손 678-800-3451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b>성사안내</b>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작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b>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8개월)</b> · 주일 : 11시 40 분 (하상관) · 화요일 : 오후 8 시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b>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b>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b>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b> · 불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b>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b> · (703) 968-3070
---	---	--

미사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PARISH STAFF 주임신부 정인준 (파트리치오) | 보좌신부 성원경 (대건 안드레아) | 사도회장 이용현 (요셉)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